

‘택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택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는 깨달았느냐?”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예정’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성서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비유컨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할 때는 전심(全心)을 해서 구해서 빼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값진 진주를 목적하고 다니는 사람이 진주를 만났을 때는 그 동안 장사해서 벌은 것, 모든 있는 것을 몽땅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나. 이와 같이 천국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나왔지만 의인을 찾느라고 하나님은 턱을 고이시고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세계를 절대 필요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공기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고, 해도 달도 필요하고, 철도 필요하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신의 성품이라 어디까지나 늘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상상도 못하는 단계까지 가고, 꾸중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 되고, 인간이 타락된 이상, 인간이 병들어서 쓰러진 이상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듯이 절대로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다 무지의 세계로, 사망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나하나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진주가 값이 나갈지라도 구하고 말 듯이 하나님도 자기가 택한 자들을 이와 같이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택한 자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설교를 잘 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시대의 말씀을 깨달았기에 그 말씀과 연결시키면 다 값있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은 사람과 같이 붙여놓으면 죽은 사람도 결국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과 붙여놓으면 산 사람도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던 어떤 사람과 같이 구해서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값 있는 생활을, 누구를 따라가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늘 끌려 다니지 말고, 늘 하늘의 진리 안에서 책임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사람과 진리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렀으니 자기도 하나의 시대의 중심자 입장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선수범하고 본인이 뛰고 달리고, 책임도 짊어지고 모두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로 자꾸 형성되어 가야 됩니다. 진리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 말썽거리, 골치 아픈 사람, 결국 꼴도 보기 싫고, 내쫓아야될 사람이 되고, 결국 바깥 어두운 데에 가야될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볼 때 안쓰럽기 하지만 하늘이 틀어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에 끄집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것은 예정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택했다.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거기서 좋은 것만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고른다는 것은 뭇고하니, 고기 중에서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물에 있는 어떤 잡다한, 그물에 걸린 엉성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고기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쁜 것은 집어던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그 그물질에서, 복음의 그물질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횡적과 종적인 말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적인 말씀을 던져서 그물질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물에 걸렸고, 일단은 골라내서 주인이 끄집어냈습니다. 이미 개인에게도 얘기했지만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분명하다. 내가 그에 대해 증인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택한 자들이 되어서 그물에 걸렸고, 주인이 앉아서 초근히 골라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기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 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심판하고 돌아다니는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합니다. 천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심판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시중을 들뿐이지 심판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천사가 와

서 돌아다닌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하늘 사람들을 인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노니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공부한 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라.”

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 심판받아라. 너 죄인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신사적인 심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서 안 따라오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섭리 그릇에, 섭리역사, 섭리 그릇, 선생님 주관권 안에! 이런 섭리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느니라.

우리는 이미 골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늘도 기대를 할 것이고, 바라고 있습니다. 골라올 때 그냥 쓱 찌른 것도 아니고 많은 값을 주고 골라왔습니다. 감격하고 감사도 하지만, 그 값에 대한 그런 대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늘이 이런 복음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을 모으리라. 말씀 갖고서 모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택했나, 안 택했나 보입니다. 그리고 생활을 해보면 저 사람이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가는 사람이 1급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늘이 택한 것에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택함 받고 온 것은 사실이구나.’ 깨닫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들의 할 일이 심히 크고, 감격감사하며 고마움을 우리가 크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갖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섭리사,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낸 자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내서 섭리 가운데 오게 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도 골라내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고, 천주교도 모두 골라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정말로 섭리의 마지막 순으로 골라냄을 받았습니다. 그런 순에서 우리가 새로운 순에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골라낸 자들입니다. 시장에 가도 고르라고 했습니다. 고르지 않고 그냥 마구 집어온 것보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오고서 돈을 낼 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른 가운데 들어왔으니 하나님께 아깝지 않게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무불같은 그 무서운 세계를 벗어나도록 우리들도 뛰고 달림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인자와 사랑과 공의를 주시옵소서.

한번 나는 8시간 동안이나 적진 속에서 후퇴하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만 도망쳐도 되느냐고 하였던니 소대장이 하는 말이 방위각을 보니 아직도 적의 소굴 속에 있으니 더 뛰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적의 율타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시간이나 뛰어 나오니 그때서야 적의 율타리는 벗어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해는 졌습니다. 한 봉우리를 잡고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의 사정거리 안에 자리 잡고 앉아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적이 쏘는 포탄의

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자는 적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뛰고, 하늘 앞에 더 깊은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보은 저수지가 터졌을 때 규석이는 차로 물이 들어왔지만 차를 사정없이 밟아서 올라가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들도 그와 같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댐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물길이 언제 솟을지 모르니 높은 산에 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온전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잘 가르쳤으니 잘 배우고 잘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연고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이 시대에 그러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나도 완전한 세계에 서게 하시고, 그들도 완전한 세계에 서게 하라 했습니다.

평강과 의, 공의, 진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주인이 되고, 말씀 속에 와서 사는 자는 택함 받은 자라고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중간 입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이끌어 갈 것이 없을까 염려하여 기도합니다. 행여 택한 자를 끌어갈까. 모두 책임을 다하고 뛰고 달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흑암과 사탄을 멸하며, 하루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떠납니다. 오늘도 사고와 해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약한 자와 연약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병든 자를 고치시고 건강케 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서부, 동부, 그리고 모든 동방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길이 살피사 생명들이 번창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택한 자들이 수시로 부지런히 돌아오도록 날마다 지켜 주시고, 사업하며 뛰고 달리며 경제를 보는 모든 자들도 축복해 주셔서 잘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를 갈지라도 해됨과 상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해받음이 두렵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복음에 들어올 자들을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잡아 주셔서 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빌고 원했으니, 아버지께서 이들 위에 축복과 사랑이 넘치도록 더욱 충력을 더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